

P103

## 한국 토종개의 본 모습과 삼살개의 보존과정

하지홍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유전공학과, 대구 702-701

개는 여러 가축 중에서 가장 먼저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최초의 동물이다. 연구 방법에 따라 가축화 시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고고학적 연구에 의해 과거에는 대체로 일만 삼천 또는 일만 오천 년 전에 개의 가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 했었으나 늑대와 의 염기서열 비교에 의하면 1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역사 시대 훨씬 이전부터 개를 길렀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반도 유입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개들의 한반도 정착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기원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추측컨대 구석기시대 말기 또는 초기 신석기 근간에 반도로 유입된 북방 유목민들과 함께 이 땅에 정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과 새로 유입된 유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하나의 유전자 풀을 형성하여 단일 민족이 되었듯이 여러 번에 걸쳐 파도처럼 유입되어 들어온 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유전자 풀을 형성하게 되고 한반도 토종개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하나의 유전자 집합기는 하지만 모양의 다양성은 대단히 커서 온갖 형태와 색깔의 개들이 모두 존재했던 것 같다. 이 개들은 자연스럽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길들여지게 되었는데, 약한 개들은 자연히 도태되어 그 수가 줄어들게 되고 질병에 강하고 생존능력이 뛰어난 개들만이 살아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연에 의한 도태는 이루어졌으나 개를 용도 혹은 모양과 특정 성격에 따라 하나의 품종으로 고정해 낸다든지 개량해 보는 일, 즉 인위적 도태와 선발은 일제시대 이전에는 이 땅에서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다. 막연히 모양이 좀 특징적인 개에 대해서 사용하던 몇 개의 이름만이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더라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품종으로 개를 구분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모양으로 지칭하던 이름으로는 삼살개, 바둑개, 발발이 정도가 있으며 개의 크기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한자어로 구분을 했었는데 큰 개는 오(獒)와 방(龍)자를, 작은 개는 구(狗)자를, 보통 크기의 개에 대해서는 견(犬)자를 사용했던 것 같다. 방자의 경우에는 클방이란 의미도 있지만 털긴 개 즉 삼살개라는 의미도 있었다. 수 천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내려오던 우리 토종개들의 모양과 유전자 구성이 크게 바뀐 것은 일제 시대와 해방 후 서양 문물의 급격한 도입기 동안이었다. 우리 토종개들을 수탈해 갈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대규모 도살을 감행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 대형 개들이 거의 전멸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해방 후 수입되어 들어왔거나 서양인들에 의해 도입된 외국 견종들과의 교잡은 우리개에 대한 통념 또한 바꾸어 버렸다. 해방 후 서양 개들이 들어오면서 개를 품종에 따라 구분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으며 순종, 품종기준이란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한때는 잡종견이 토종개라는 말과 동의어 처럼 쓰이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잡종화되지 않고 고유 품종으로 보존된 토종개 집단으로 진돗개, 풍산개, 삼살개가 있다. 진돗개는 1938년에, 풍산개는 1943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천연기념물 제53호와 제128호로 각각 지정되어 보호받아 왔으며, 삼살개는 1992년 우리 정부로부터 제368호로 지정받았다. 우리 전통개에 대해 다루는 본 강의는 내용 구성상 크게 3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시 토종개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것으로 옛 그림과 문헌들을 통해 살펴보고, 병행하여 그동안 발굴된 많지 않은 고대개 유골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할 것이다. 산성이 강한 우리 토양 조건에서 자연 유물이 보존되기 어려운 탓에 형태를 갖춘 고대 동물 유골이 완형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물지만 패총이나 저습지등에서 형태를 갖춘 개뼈가 출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토종개 전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집단유전학적인 차원에서 최근 이루어 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주제에서 혈통기원에 중점을 두고 그 연구결과의 대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말엽에 거의 멸종 지경에 까지 이르렀던 삼살개의 보존과 복원이 지난 30여년간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15년 간의 재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룰 것이다.